

광주서 전세계 AI 현재·미래 기술 한눈에 본다

광주시, 30~11월1일 광주과학기술서 '아이콘광주 2024' 개최 초거대 인공지능·AI윤리 등 논의...AI집적단지 홍보관 마련

전 세계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미래를 내다보는 세계적 인공지능(AI) 학술회의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30일부터 11월1일까지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희관에서 '제4회 아이콘(AICON) 광주 2024'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아이콘(AICON) 광주 2024'는 광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주)이 주관하며, 세계적 인공지능 석학과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기업인, 기관, 대학,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국내 최대 규모 인공지능 학술회의다.

프로그램은 기조강연, 특별강연, 주요 6개 인공지능(AI) 세션, 인공지능 토론회, 인공지능 북콘서트 등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의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 인공지능 기술 응용 사례 등을 다양하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사 첫날인 30일에는 티모시 파판드레우 미국 이머징 트랜스포트 어드바이저스의 최고경영자(CEO)가 'AI의 미래'를, 정지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가 'AI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연다. 이어 크리스토퍼 데이즈 독일 디에이치엘(DHL) 부사장이 'AI 혁신 사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둘째 날인 31일에는 '초거대 AI'를 주제로 한국·중국·일본의 대형언어모델(LLM) 시장 현황과 미래를 논의하는 세션이 열린다. 야슈히로 가타기리 일본 인공지능연구소(AIRC) 센터장, 리청취안 중국 베이징 AI연구소(BAID)의 수석연구원, 이문태 LG AI연구원 랩장이 각각의 대형언어모델(LLM) 기술 발전방향 등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AI 클러스터' 세션에서는 캐나다·중국·일본의 인공지능협약체(클러스터)와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사례를 공유하며, 세계 인공지능산업의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AI 반도체 & 온디바이스' 세션에서는 AMD, NVIDIA 등 세계적 인공지능 기업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과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의 발전 전망 등을 다룬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은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에 연결돼 데이터와 연산을 지원받았던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에서 벗어나 기기 자체에 탑재돼 직접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는 'AI 비즈니스', 'AI 미래 포럼', 'AI 윤리'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과 최재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산업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설명하고, 삭 세그훈토드 태국 AI 거버넌스 클리닉

(AIGC) 선임 어드바이저는 태국 인공지능 발전 현황과 정부-기업 간 협업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또 'AI 윤리' 세션에서는 데이터 윤리 문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책임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이콘(AICON) 광주 2024'에서는 이 같은 학술 관련 행사는 물론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행사가간동안 열리는 'AI 토론회'에서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비경쟁 방식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제를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북콘서트'는 인공지능 석학인 장병탁 서울대학교 교수와 오순영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하정우-배승민 작가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적 자극과 함께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 되는 이야기를 나눈다.

행사 기간 광주과학기술원 오희관 내에 인공지능 집적단지 홍보관도 마련돼 인공지능 기업 제품과 서비스 등도 체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협력네트워킹' 행사에서는 국내외 연사들과 기술-비즈니스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도 갖는다.

참가 신청은 '아이콘(AICON) 광주 2024' 누리집(https://aicon2024.com)을 통해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체험하며 세계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웅장하고 신명나는 '고고장구' 전국 장구 동호회원 2000여명이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를 맞아 지난 5일 금남로 거리에서 장구 공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나주 척서정 등 7건 문화유산 지정

역사적·문화적 중요성 인정

조선시대 지어진 나주 척서정 등 7건의 문화재가 전남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나주 척서정은 고려 후기 무신 정지(1347~1391)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후손(정해일)이 1915년 건립한 정자다. 이후 영정(影幀)을 모셔둔 사당(祠堂)인 영당(靈堂)으로 기능이 변용됐다. 전통 목조 구조가 견실하고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는 점이 인정됐다.

여수 한산사 지장사당도는 18세기 전반 불화 특정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조성 연대와 봉안처, 참여 제작자들의 기록이 남아 불교사와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천 금룡사 지장보살본원경은 임진왜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간행처와 간행 과정을 통해 당대의 불교문화를 파악할 수 있어 서지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

해남 남천교 및 어성교 중수비와 청류정 표석은 해남지역 다리 중수 과정과 청류정의 존재를 알 수



순천 지장보살본원경(왼쪽)과 해남 방죽샘과 중수비.

있다. 해남지역 향촌사회와 당시 지명사를 파악하는데 귀중한 유산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해남 방죽샘과 중수비는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까지 주민에게 중요한 식수원이었던 생활유적이다.

장흥 열호재는 1800년대 초반 사량재와 행랑재를 붙여 세운 건물이다. 장흥부사나 인근 선비들의 많은 시문이 전해지고 있어, 건축적인 특징과 함께 복합적 문화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정 가치가 크다.

장흥 수의봉과 위원량 망곡 암각시문은 1920년 화은 위원량에 한일 병탄에 따른 국망(國亡) 통탄을 칠연절구에 담아 수의봉에 새긴 암각문으로, 전국적으로 희귀한 사례로 역사적·학술적 의의가 크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치유의 황토갯벌 맨발걷기

전남도, 무안서 8~10일 축제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청춘어람 육성사업'의 하나로 무안의 갯벌과 건강치유를 결합해 구상한 '치유의 황토갯벌 맨발걷기' 축제가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다. 청춘어람 육성사업은 '청년이 만드는 해양관광의 요람'이라는 의미로, 전남의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축제는 청춘어람 4기 참가자인 고세형(22)씨가 직접 기획한 것으로 무안군 청계면 하늘 바다별펜션 갯벌 일대에서 2박 3일간 50시간 지속되는 숙박 체류형으로 진행된다.

축제 기간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창동 회장의 맨발 특강을 비롯해 나도 맨발걷기 지도자 콘서트, 마음챙김 힐링 요가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무안 갯벌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들이 마련된다. 특히 관광의 핵심 가치인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인근 지역민들이 재배한 농수산물 판매장이 축제장에서 마련되며 무안관광 사진전을 특별전시로 마련해 무안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알린다. /유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립수목원에 황금연꽃바나나 꽃 개화 눈길

개원 1년만...170여종 식물 감상

개원 1년을 맞은 광주시립수목원에 희귀하고 상서로운 황금연꽃바나나 꽃(사진)이 개화에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광주 수목원·정원 사업소에 따르면 시립수목원 전시 온실에 있는 황금연꽃바나나가 지난달 6일 처음 꽃을 피운 데 이어 지난달 23일 다른 바나나에서도 꽃이 피었다.

황금연꽃바나나는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견되는 희귀종으로, 샛노란 꽃과 길고 굵은 줄기가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뽐낸다. 꽃꽂이 서서 연꽃처럼 피어나는 꽃은 개화기간이 9~10개월로,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다.

"행복을 초대합니다"란 꽃말을 가진 황금연꽃바나나꽃은 중국 등에서 귀한 손님이 방문할 때 내놓는 상서로운 꽃이기도 하고 수목원은 전했다.

전시온실에는 황금연꽃바나나꽃과 함께 파파야, 구아바, 야자유, 고무나무 등 다양한 열대·아열대, 지중해식물 등 170여종이 자라고 있다. 또 자스민, 아스타, 팬타스 등 꽃이나 잎이 화려한 식물들을 심어 포토존도 마련했으며, 전시온실 주변에는 텃



씨리(초화류)를 식재해 가을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텃씨리는 초록빛을 띠면서 둥글둥글한 형태로 성장하다가 10월 중순부터 붉게 물드는 모습이 아름답고 특별한 경관을 연출한다. 김용만 광주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시립수목원 개원 1년 만에 꽃을 피워 수목원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며 "많은 시민이 찾아 신비로운 꽃을 감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